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실태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대학원 산업의학과 · 가톨릭대학교 산업의학센터*

이명희 · 박정일 · 구정원* · 임현우*

— Abstract —

The Stress Level According to the Working Status in the Migrant Workers

Myung Hee Lee, Chung Yill Park, Jung Wan Koo*, Hyeon Woo Yim*

*Department of Occupational Medicine, Graduate School of Occupational Health,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Catholic Industrial Medical Center,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which has increased since 1989, can be classified into industrial trainees and illegal migratory workers. As of January 1995, the official number of foreign workers reached 49,805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Labor. But the real number is estimated to be around 100,000 and industrial trainees are 22,583 among them. The stress induced by the culture shock, 3D(dirty, difficult and dangerous) working conditions, and illegal status of the foreign workers is greater than that of regular Korean workers.

By using a psychological well-being index(PWI) measuring stress on 144 foreign workers, it was revealed that 68 people experienced "high risk stress", 76 "latent stress", and the average score was 62.8. The overall stress level was very high.

Considering the distribution of high risk stress group and latent stress group by socio-demographic factors, the percentage of high risk stress group was higher among workers whose contract periods are less than 2 years than among workers whose contract periods are longer than 2 years. And the percentage of high risk stress group was higher when the number of workers at factory becoming larger, and also higher among workers who can not communicate well than among workers communicate well.

After having a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to find the socio-demographic factors which influence the PWI score, we found that the PWI score goes higher when the contract period is becoming shorter and the work hours is becoming longer, and these two factors are able to explain the score up to the level of 16.3%.

Key Words : Migrant workers, Working status, Stress level

서 론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산업기술 연수생과 불법체류 근로자로 나눌 수 있다(김선수, 1994).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수는 노동부에 의하면 1995년말 현재 49,805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실제로는 대략 1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고(홍옥일, 1995), 산업기술 연수생은 1995년 3월 현재 22,583명으로 나타나 있다(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1995).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가 처음 입국하기 시작한 시기는 1989년부터로서 제3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이 부유한 나라로 알려지게 된 88올림픽을 기점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1992년경이다. 1989년에는 주로 필리핀 여성들의 가정부 형태의 취업이었고, 1990년을 기점으로 중국과 한국의 문화가 개방되면서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 교포들이었으며 그 후, 이른바 3D 업종의 기피현상으로 생긴 인력난으로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낮은 산업구조에 머물러 있는 영세 중소기업체들이 심각한 인력난과 생산비용의 증가로 1993년에는 1만개 이상의 기업이 파산하여 문을 닫았다. 그 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제조업체에서 노동하는 한 체포될 염려는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묵인된 정부의 출입국 관리정책으로 유입 인원이 늘어나게 된 것이 그 배경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들의 국내 유입이 국내 산업장 인력을 채우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작업조건은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신 건강 역시 상당히 위협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 요인으로는 첫째, 외국 생활로 인한 문화충격 둘째, 영세 기업의 이른바 3D 직종의 근로 작업환경 셋째, 인종적 차별성과 함께 그들이 갖고 있는 불법체류의 신분으로 기인되는 정신적, 신체적 불이익 등의 부담을 한국 근로자들보다 더 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근간에 여러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기업주들로부터 불법체류의 약점때문에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강요, 구

타, 여권압류, 낮은 임금 강요, 고발 위협, 갈취 등의 불이익을 당하였으며(홍윤철과 하은희, 1996; 지인식, 1996), 산재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27.3%나 되었다(홍윤철과 하은희, 1996).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미 한국의 산업구조가 필요로 하는 한 부분을 확고하게 자리잡은 현실에서, 적절한 관리방안의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그들의 작업상태와 삶의 스트레스가 어느정도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스트레스는 정신건강뿐 아니라 많은 심리학적 신체 증상, 고혈압, 두경부 통증, 경견완 증후군, 소화기계질환, 불안 및 우울질환, 상해, 폭력, 자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스트레스를 정량화 하려는 시도는 Thomas Holmes와 동료들이 생활변화(life change)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 재적응 평가 척도(Social readjustment scale)를 고안함으로써 시작되었다(정도연, 1986). 스트레스의 측정 방법으로는 집단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일차 의료활동의 영역에서는 설문지법이 가장 용이한데, 미국의 교육 및 심리 검사 기준(Standard for Education and Psychological Testing)에서는 개인용과 집단용 설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평가할 것을 권하고 있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대표적 설문지로는 SCL 90(Symptom check List 90) (Derogotis LR 등, 1973; 최정애, 1982), 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이채용과 이종영, 1996). 이들은 정신건강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취급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간과하였고, 개인용으로 고안된 검사들이어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 외국에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조사연구에서 대표적 도구로 인정받은 GHQ-60(Goldberge, 1978)을 장세진(1993)이 45개 문항으로 재구성한 사회 심리적 건강측정도구 Psychological Well-being Index (PWI)를 제작하였고, 이채용과 이종영(1996)이 그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토해 본바 있다.

개방된 자유 경제사회 속에 격리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실태를 파악해 보고, PWI 설문지를 이용하여 사회, 심리학적 스트레스를 정량화하고 이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향후 외국인 근로자들의

적절한 관리 방안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본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외국인 근로자 중 불법 체류 근로자가 더 많으며 그들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1995년 1월 시점에서 약 10만 명으로 추정 되고 있다. 대상 모집단의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그들이 여러 곳에 친분 있는 같은 국적의 근로자들끼리 소수로 산재해 있는 관계로 국적별 대표성 있는 표본을 얻는 일은 힘들고 무작위 표본을 얻는 일도 어려운 일이다. 또한 기업탐방을 통한 설문조사가 조사 내용상 기업주에 의해 회피되는 사항이어서 종교단체를 이용하여 설문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어를 잘하는 중국 교포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조건과 적응 면에서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과 차이가 있어(박래영, 1993) 동남아 지역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1996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지역에 소재한 8개의 종교 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곳에 방문한 외국인 근로자 160명을 대상으로 국적, 종교, 나이 등 인구 사회학적 개인별 설문사항과 PWI 검사 문항의 영문 설문지를 나누어 주어 자기 기입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그중 분석이 가능한 14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최근에 비교적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어 널리 사용된 일반 건강 측정표(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 GHQ)를 기초로 장세진(1993)에 의해 재구성된 사회 심리적 건강 측정도구(Psychological Well-being Index, PWI)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45문항에 대한 4지 선택사항(항상, 자주, 가끔, 전혀)별로 3-2-1-0 점을 주어 합산하는 형식이며 개인별 스트레스 수준은 63점 이상을 고위험 스트레스군, 62-23점 사이를 잠재적 스트레스군, 22점 이하를 건강집단군으로 하였다(장세진, 1993). 모든 자료의 통계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의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는 바, 각 인구사회학적 요인별 PWI

점수의 비교는 Student's t-test와 ANOVA Scheffe test를 하였고 고위험 스트레스군과 잠재적 스트레스군에서의 각 인구사회학적 요인별 빈도는 χ^2 검정을 하였고, 어떤 요인들이 PWI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단계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하였다.

성 적

1.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반적 특성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국적은 필리핀이 75.2%로 가장 많았으며, 네팔(9.6%), 스리랑카(6.4%), 파키스탄(4.8%)순이었다. 연령은 20대 50.7%, 30대 40%, 40대 9.3% 순으로 20대와 30대가 전체의 90%를 차지하였다. 성별은 남자 56.3%, 여자 43.7% 이었으며 결혼 상태는 기혼 51.4%, 미혼 48.6% 이었다.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상 45.2%, 3명 16.1%, 2명 15.3% 등으로 전체의 84.7%가 부양가족이 있었다. 학력은 대졸 50.4%, 고졸 44% 로써 고졸이상 이 전체의 94.4% 이며 후진국의 교육 상황으로 볼 때 엘리트 그룹의 유입을 추정할 수 있다. 종교는 개신교 78.3%, 이슬람 11.6%, 가톨릭 3.6%, 불교 3.6%의 순이었다.

2. 취업 관련 사항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 관련 사항은 Table 2와 같다. 근로기간은 1-2년 사이가 40.3%, 2년 이상 35.7%, 6-11 개월이 14.0% 순이었고, 계약 기간은 불법 체류가 많은 탓으로 무응답군이 40.4%를 차지하였고 응답군중 1-2년 사이 42.2%, 2년 이상 39.8%, 6-11 개월 사이가 10.8% 순이었다. 근무시간은 10시간 이상 근무자가 전체의 64.5%를 차지하였다. 작업장은 의류제조업과 플라스틱 제조업이 각각 27.2%, 18.8%로 가장 많았고, 작업장에서 조수일이 48.9%, 포장하는 일이 33.1%로 미숙련의 단순 작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직장의 근로자수는 30명 이하 소규모 기업에 있는 경우 83.3%를 차지하였다. 월 소득은 501불-1000불이 55.1%, 500불 이하가 42.8%를 차지하였다.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84.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타사항

Table 3의 그외 기타사항을 살펴보면 한국으로 오는데 사용된 경비는 2,000불 이상이 28.5%, 501-1,000불, 1501-2,000불이 각각 24.1%를 보였다. 한국에 온 목적중 돈을 벌기 위해서가 66.2%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migrant workers

Characteristics	Frequency*	Percentage
Nationality		
Philippine	94	75.2
Pakistan	6	4.8
Nepal	12	9.6
Bangladeshi	2	1.6
Sri Lanka	8	6.4
The other	3	2.4
Age		
21 - 30	71	50.7
31 - 40	56	40.0
41 - 50	13	9.3
Sex		
Male	80	56.3
Female	62	43.7
Marital status		
Never married	69	48.6
Married	73	51.4
Dependents		
None	19	15.3
1	10	8.1
2	19	15.3
3	20	16.1
≥4	56	45.2
Educational status		
Elementary school	5	3.5
Junior high school	3	2.1
High school	62	44.0
College	71	50.4
Religion		
Protestant	108	78.3
Catholic	5	3.6
Buddism	5	3.6
Moslem	16	11.6
The other	4	2.9
Total	144	100.0

* : Total frequency of subgroups was different due to missing data

Table 2. Characteristics related to occupation of migrant workers

Characteristics	Frequency	Percentage
Working period		
<3 months	7	5.4
3 - 5 months	6	4.7
6 - 11 months	18	14.0
1 - <2 years	52	40.3
≥ 2 years	46	35.7
Contract period		
<6 months	6	7.2
6 - 11 months	9	10.8
1 - <2 years	35	42.2
≥2 years	33	39.8
Working hours		
< 8 hours	5	3.5
8 - 9 hours	45	31.9
10 - 11 hours	46	32.6
≥ 12 hours	45	31.9
Field		
Food and beverage	4	2.8
Garment	42	27.2
Wooden products	14	9.7
Pulp and paper	6	4.2
Printing	9	6.3
Chemical	3	2.1
Plastic	27	18.8
Machine and tools	23	16.0
The other	16	11.1
Job title		
Painter	2	1.5
Packer	44	33.1
Helper	65	48.9
Embroiderer	11	8.3
The other	11	8.4
No. of workers		
≤ 5	42	33.3
6 - 30	63	50.0
31 - 50	11	8.7
51 - 100	4	3.2
> 100	6	4.8
Income		
≤ US\$ 500	59	42.8
US\$ 501 - 1000	76	55.1
US\$1001 - 2000	3	2.2
Satisfaction with income		
Very satisfied	11	7.8
Satisfied	108	76.6
Half satisfied	6	4.3
Unsatisfied	12	8.5
Very unsatisfied	4	2.8

가장 많았으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유학적 성격인 경우도 20.4%나 되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스스로 원활하다고 한 경우가 81.7%이었고, 어렵다고 한 경우가 18.2%이었다.

4. PWI 점수별 대상자 분포

스트레스 점수별 대상자의 분포는 Table 4와 같다. 고위험 스트레스군에 속하는 조사 대상자수는 68명으로 47.2%이었으며, 잠재적 스트레스군에 속하는 조사 대상자 수는 76명으로 52.8% 이었다. 건강집단군의 점수를 보인 대상자가 없을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의 PWI점수는 높았고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의 PWI 점수의 평균은 62.8이었다.

5.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의 분포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취업에 관련된 사항 19개 요인과 스트레스 수준의 분포는 Table 5와 같다. 계약기간이 2년미만에서 2년 이상보다 고

Table 3. The other characteristics of migrant workers

Characteristics	Frequency	Percentage
Expenses to come to Korea		
≤ US\$500	16	11.7
US\$ 501-1000	33	24.1
US\$1001-1500	16	11.7
US\$1501-2000	33	24.1
> US\$2000	39	28.5
Purpose		
To make money	94	66.2
To learn skill	29	20.4
To enjoy foreign country	10	7.0
To preach religion	5	3.5
The other	4	2.8
Oral communication		
Very well	15	10.9
Good	97	70.8
Poor	25	18.2
Status in Korea		
Industrial trainee	78	66.1
Full time regular worker	38	32.2
Part time worker	2	1.7

위험 스트레스군이 유의하게 더 많았으며 ($P < 0.05$), 직장의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고위험 스트레스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또한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답한 경우가 원활하다고 한 경우보다 고위험 스트레스군이 유의하게 많았다 ($P < 0.05$). 고위험 스트레스군과 잠재적 스트레스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은 소군(subgroup)의 대상자수가 적거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다.

6.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PWI 점수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취업관련사항에 따른 PWI 점수의 평균은 Table 6과 같다.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인 경우가 2년이상인 경우보다 PWI 점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1년 미만인 경우도 2년이상보다 PWI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직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하인 경우가 근로자수 30인을 초과한 경우보다 PWI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6-30인 경우 보다는 PWI 점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그외 다른 연령, 성별, 결혼상태, 부양가족의 수, 학력, 근로기간, 작업시간, 한국으로 오는데 사용된 경비, 한국에 온 목적, 월 소득, 소득에 대한 만족도 및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각 군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7. PWI 점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취업관련 사항 등의 요인이 PWI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단계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계약기

Table 4. Distribution of study subjects by PWI scores

Group	Frequency	Percentage	Mean score
High risk stress group (63 ≤)	68	47.2 %	74.3
Latent stress group (62-23)	76	52.8 %	52.5
Healthy group (≤ 22)	0	0.0 %	0.0
Total	144	100.0 %	62.8

Table 5. Distribution of subjects on high risk and latent stress group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High risk stress group	Latent stress group	P-value
Nationality			0.313
Philippine	50(53.2)	44(46.8)	
Pakistan	5(83.3)	1(16.7)	
Nepal	6(50.0)	6(50.0)	
Bangladeshi	1(50.0)	1(50.0)	
Sri Lanka	5(62.5)	3(37.5)	
The other	0(0.0)	3(100.0)	
Age			0.431
21-30	35(49.3)	36(50.7)	
31-40	28(50.0)	28(50.0)	
41-50	4(30.8)	9(69.2)	
Sex			0.445
Male	40(50.0)	40(50.0)	
Female	27(43.6)	35(56.5)	
Marital status			0.989
Never married	33(47.8)	36(52.2)	
Married	35(48.0)	38(52.1)	
Dependents			0.404
≤1	16(55.1)	13(44.8)	
≥2	44(46.3)	51(53.7)	
Educational status			0.150
≤Junior high school	6(75.0)	2(25.0)	
≥High school	61(45.9)	72(51.1)	
Religion			0.364
Protestant	46(42.6)	62(57.4)	
Catholic	3(60.0)	2(40.0)	
Buddhism	3(60.0)	2(40.0)	
Moslem	10(62.5)	6(37.5)	
The other	3(75.0)	1(25.0)	
Working period			0.386
<1 year	17(54.8)	14(45.2)	
≥1 year	45(45.9)	53(54.1)	
Working hours			0.291
<10 hours	24(48.0)	26(52.0)	
10-11 hours	18(39.1)	28(60.9)	
≥12 hours	25(55.6)	20(44.4)	
Contract period			0.013
<1 year	8(53.3)	7(46.7)	
1-2 years	23(65.7)	12(34.3)	
≥2 years	10(30.3)	23(69.7)	

(continuing)

Characteristics	High risk stress group	Latent stress group	P-value
Field			0.937
Food and beverage	1(25.0)	3(75.0)	
Garment	23(54.8)	19(45.2)	
Wooden products	7(50.0)	7(50.0)	
Pulp and paper	3(50.0)	3(50.0)	
Printing	5(55.6)	4(44.4)	
Chemical	1(33.3)	2(66.7)	
Plastic	11(40.7)	16(59.3)	
Machine and tools	10(43.5)	13(56.5)	
The other	7(43.8)	9(56.3)	
Job title			0.311
Painter	0(0.0)	2(100.0)	
Packer	21(47.7)	23(52.3)	
Helper	35(53.9)	30(46.2)	
Embroiderer	6(54.6)	5(45.5)	
The other	3(27.3)	8(72.8)	
No. of Workers			0.005
≤ 5	12(28.6)	30(71.4)	
6-30	35(55.6)	28(44.4)	
> 30	14(66.7)	7(33.3)	
Expenses			0.070
to come Korea			
≤US\$500	6(37.5)	10(62.5)	
US\$501-1000	12(36.4)	21(63.6)	
US\$1001-1500	12(75.0)	4(25.0)	
US\$1501-2000	19(57.6)	14(42.4)	
> US\$2000	17(43.6)	22(56.4)	
Purpose			
To make money	42(44.7)	52(55.3)	
To learn skill	14(48.3)	15(51.7)	
To enjoy	5(50.0)	5(50.0)	
foreign country			
To preach religion	3(60.0)	2(40.0)	
The other	4(100.0)	0(0.0)	
Income			0.787
≤ US\$500	29(49.1)	30(50.9)	
>US\$500	37(46.8)	42(53.2)	
Satisfaction with income			0.225
≥Satisfied	60(50.4)	59(49.6)	
≤ Half satisfied	8(36.4)	14(63.6)	
Oral communication			0.028
Good	49(43.8)	63(56.3)	
Poor	17(68.0)	8(32.0)	
Status in Korea			0.702
Industrial trainee	40(51.3)	38(48.7)	
Regular worker	22(55.0)	18(45.0)	

Table 6. Means of PWI scores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	PWI score(mean±SD)	F-value(or T-value)	P-value
Age			0.53	0.592
21-30	71	63.5±15.1		
31-40	56	63.4±14.1		
41-50	13	59.2± 5.8		
Sex			1.21	0.231
male	80	64.0±14.8		
female	62	61.1±13.3		
Marital Status			0.37	0.712
never married	69	63.3±14.9		
married	73	62.5±13.5		
Dependents			-0.08	0.939
≤1	29	62.9±12.8		
≥2	95	63.1±13.2		
Educational status			2.05	0.078
≤junior high school	8	79.5±23.8		
≥high school	133	62.1±12.5		
Working period			0.62	0.534
<1 year	31	64.5±16.1		
≥1 year	98	62.6±14.1		
Working hours			1.16	0.317
<10 hours	50	62.0±13.0		
10-11 hours	46	61.3±14.1		
≥12 hours	45	65.5±15.5		
Contract period			3.77	0.030
<1 year	15	67.3±18.4		
1-<2 year	35	66.1±11.4		
≥2 years	33	58.3±12.5		
No. of workers			4.57	0.012
≤ 5	42	57.9±12.0		
6-30	63	66.1±15.9		
>30	21	64.8±11.1		
Expenses			1.75	0.142
≤ US\$ 500	16	60.1±10.4		
US\$ 501-1000	33	59.8±12.7		
US\$ 1001-1500	16	67.0±15.1		
US\$ 1501-2000	33	67.3±15.7		
> US\$ 2000	39	61.7±14.7		
Purpose			0.68	0.610
to make money	94	62.5±14.5		
to learn skill	29	61.6±12.0		
to enjoy foreign country	10	65.6±15.0		
to preach religion	5	69.2±20.8		
the other	4	70.0± 3.7		
Income			0.87	0.386
≤US\$ 500	59	64.2±14.6		
>US\$ 500	79	62.0±14.0		
Satisfaction with income			1.15	0.254
≥satisfied	119	63.7±14.2		
≤half satisfied	22	60.0±12.1		
Oral communication			-1.447	0.150
good	112	62.2±13.8		
poor	25	66.7±15.4		

Table 7. Factors affecting PWI scores of migrant workers by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Variables	Regression Coefficient	Partial R ²	Model R ²	F-Value	P-Value
Contract period	-6.764	0.090	0.090	5.723	0.020
Working hours	5.392	0.073	0.163	4.230	0.045

간이 짧을수록 PWI 점수가 높아 9.0%의 설명이 가능했고(P<0.05), 작업시간이 많을수록 PWI 점수가 높아 7.3%를 설명하여 두 요인이 모두 합해져 16.3%의 설명이 가능했다(P<0.05). 그외 연령, 성, 결혼상태, 부양가족의 수, 학력, 근로기간, 직장의 근로자수, 한국으로 오는데 사용된 경비, 월소득, 소득에 대한 만족도, 의사소통 등의 요인은 P=0.1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고 찰

중소기업 중앙회를 창구로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매년 2만명 정도의 산업기술연수생과 더불어(김성진, 1994),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함께 늘어나 앞으로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의 법적, 사회적 처우에 대한 제도적 준비작업 없이 노동력에 대한 산업적 수요만으로 유입이 시작되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피해가 사회 문제화되기에 이르렀다. 홍윤철과 하은희(1996)의 조사 발표와 같이 조사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46.1%에서 때때로 혹은 자주 폭행을 당하고,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권과 항공권을 압류 당했다는 보고(한국교회 외국인 노동자 선교 협의회, 1995)가 있으며, 또한 임금 수준에 있어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산업기술연수생의 월급은 평균 28만9천원으로(김종일, 1995) 같은 시기 한국인 근로자 평균임금 93만3천원(노동부, 1994)의 32%에 불과하다. 1960년대 파독한 한국 노동자의 경우 독일인 근로자의 75%의 임금을 받은 것(아산 사회복지재단, 1988) 등을 견주어 볼 때 그들의 낮은 임금을 비롯하여 근로자로서의 권익피해와 인권피해는 심각하며 그들의 정신건강 역시 열악한 가운데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이와같은 우려에서 시작하게된 본 연구조사는 대상군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실태를 살펴보고 그 스

트레스 요인을 분석하였다.

국정보고 자료(법무부, 1992)에 따르면 동남아 출신 불법 취업근로자 국적 비율은 필리핀 (27.3%), 방글라데시 (11.8%), 네팔 (6.3%) 순이나, 본 조사의 경우 필리핀(75.2%), 네팔(9.6%), 스리랑카(6.4%) 등의 편중되는 비율을 보이는 것은 국적과 종교가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동남아 국가들의 상황에서 이번 설문 활동이 주로 기독교 계통의 종교기관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나이는 20대 및 30대가 전체의 90.7%였으며 평균 연령은 30.9세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성비는 국적별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네팔, 방글라데시인 경우 남성의 비율이 94%(김미정, 1995)이었고 이에 비해 필리핀의 경우 51.9%(이혜경, 1993), 63.6%(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1993)으로 보고된바 있는데, 본조사의 경우 필리핀인이 75.2%로 가장 많았는데, 남성의 비율이 56.3%로서 나타난 것은, 필리핀 여성의 가정부 형태 취업군의 영향으로 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본 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50.4%, 고졸 44.0%로서, 고학력자가 많음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천주교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1993)의 대졸비율 55.6%의 조사결과와 비슷하다. 또한 고졸 이상자의 고위험 스트레스군이 45.9% 임에 비해, 중졸이하 학력자인 경우 고위험 스트레스군의 비율이 75%로 나타났고(P=0.15), 고졸 이상자의 PWI 점수가 62.1이고, 중졸이하자가 79.5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을 보이진 않으나(P=0.08), 학력이 스트레스 점수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내용 중 계약기간 항목에는 83명만이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장래가 불투명한 불법체류 근로자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고위험 스트레스군이 30.3%, 1-2년 사이인 경우 65.7%, 1년이하의 경우 53.3%로써 계약 기간이 2

년 이상인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PWI 평균점수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을뿐 아니라 계약기간 2년 미만인 경우보다 고위험 스트레스군의 분포도 적게 나타났다($P < 0.05$). 한국에 오는데 이미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여 왔고, 현재 신분이 불안정한 외국인 근로자에 있어서 임금이나 임금 만족도 보다 우선하여 장기계약기간의 확보가 스트레스를 적게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33.3%가 종업원 5인 이하의 업체에서 일을 하며, 50.0%가 6-30인 업체에 있어, 83.3%가 30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해경(1993)의 조사결과 76.2%와 김미정(1995)의 발표 73.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노동자 산업재해가 사회문제화되어 가던 시점에서 한국인 근로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서서히 빠져나가며 그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가 채워가고 있어 소규모 업체에 근무하는 비율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업장 규모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 분포의 관계를 살펴 보면, 종업원 5인 이하인 경우 고위험 스트레스군의 비율이 28.6%이나, 종업원 6-30인의 사업장에서는 고위험 스트레스군이 55.6%를 차지하고, 종업원 31인 이상인 경우 고위험 스트레스군의 비율이 66.7%나 되어, 오히려 종업원 수가 많은 큰 사업장 일수록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이것은 한국인 근로자들이 외면한 5인 이하의 작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가치가 더 인정되어지고 더 친밀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또한 가족적인 배려를 받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조사된 외국인 근로자의 한달 평균 수입은 552.6불(46만원)로 나타났다. 다른 조사 결과에서는 35만 5천원(이해경, 1993) 및 45만 7천원(김미정, 1994)으로 보고된 적이 있고, 산업기술 연수생은 평균 28만 9천원, 불법체류자는 평균 62만 9천원으로 불법체류자의 월급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김종일, 1995).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오는데 지출된 경비는 평균 1,494불로 나타났으며, 사용된 경비가 500불 이하, 501-1,000불 이하인 경우 고위험 스트레스군의

비율이 각각 37.5%, 36.4%로써 1,000불 이상인 경우 보다 PWI 점수가 적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후진국의 경제상황에서 볼 때 이들이 올 때 투자한 액수가 상당한 부담으로 계속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있어서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이 스스로 잘된다고 답한 경우가 81.7%였으며, 잘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가 18.2%인데, 전자의 경우 고위험 스트레스군의 비율이 43.8%이나, 잘되지 않는다고 대답한 군에서는 68.0%나 되어 의사소통이 스트레스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또한, 조사 대상인 전체 외국인 근로자들의 PWI 점수의 평균은 62.8로 이 연구조사의 취지에서와 같이 강조되어야 할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량화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 측정 도구로 사용한 PWI가 아직 한국에서 많은 근로자군의 정신건강측정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였으나 일부 제조업 근로자 205명을 조사한 평균치 43.2(고맹남, 1996)이나, W시의 한국인 근로자 256명에 대한 평균치 45.2(장세진, 1993)에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조사에서 PWI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단계 회귀분석 결과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작업시간이 길수록 PWI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또한 고위험 스트레스군과 잠재적 스트레스군의 분포는 계약기간, 직장의 근로자 수, 의사소통 여부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계약기간, 작업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그외 직장의 근로자 수와 의사소통 여부도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사료된다.

우리가 외면한 산업의 힘든 한 부분을 자리잡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본 연구 결과와 같이 그들의 위협받는 정신건강 상태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는 인도적인 측면 뿐 아니라 3D 증폭에 종사하는 산업현장의 인력보호를 위하여도 필요되는 조치이다. 더구나 세계화를 지향하며 국제협력에 노력하는 이즈음 홍윤철과 하은희(1996)의 조사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의 악화는 심각히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 개선책으로는 연구 결과와 같이 필요한 인원에 대해 국내 체류 승인 및 근로기준법 등의 법적 보호를 함으로써 계약기간의 확보 및 법정 근로시간의 준수를 해주고 나아가 사업장 단위로 개개인에 대한 배려를 함으로써 이질문화와 언어장벽의 불편함을 덜어 주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 된다.

끝으로 아쉬운 것은 정량화된 수치가 나타내는 임상적 의미, 즉 심리적, 신체적 증상 등과의 연관 관계가 추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맺 음 말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실태를 파악해보고, 스트레스 수준과 사회인구학적 요인들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여 향후 관리 개선의 지표로 삼기 위하여 1996년 10월 동남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 144명을 대상으로 사회 심리적 건강 측정도구(PWI)를 이용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은 21-30세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은 남자가 많았고 대부분 기혼이었고 부양자수는 4명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교육 수준은 대졸이상이 가장 많았다.
2. 취업관련사항으로 근로기간과 계약기간은 1-2년 사이가 가장 많았고 2년 이상이 그 다음이었고, 근무시간은 10시간 이상이 대부분이었으며, 작업장은 의류제조업과 플라스틱 제조업이 가장 많았고, 작업장에서 하는 일은 조수, 포장하는 일로 미숙련의 단순 작업이었다. 직장의 근로자수는 30명 이하가 대부분이었고, 월소득은 501-1000불이 가장 많았고,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3. 한국으로 오는데 사용된 경비는 2000불이상이 가장 많았고, 한국에 온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으며, 의사소통은 대부분 원활하였다.
4. 고위험 스트레스군에 속하는 대상자가 68명(47.2%)이었고, 잠재적 스트레스군이 76명(52.8%), 건강 집단군은 없었으며, PWI 점수의 평균은 62.8로 매우 높았다.
5.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고위험 스트레스군

과 잠재적 스트레스군의 분포에서 계약기간이 2년 미만에서 2년 이상보다 고위험 스트레스군이 유의하게 더 많았으며, 작업장의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고위험 스트레스군이 유의하게 더 많았으며,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한경우가 원활한 경우보다 고위험 스트레스군이 유의하게 많았다.

6. PWI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단계 회귀분석을 한 결과,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작업시간이 많을수록 PWI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두요인의 설명력은 16.3%이었다.

REFERENCES

고맹남. 일부 제조업 산업장 근로자의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 요인 연구석사 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대학원 학위 논문집. 1996.

김미정.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 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1995.

김선수. 한국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인권문제. 서울: 서울 지방변호사회, 1994.

김성진.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1994.

김종일. 국제 노동력 이동과 외국인의 국내취업; 노동시장 효과와 사회적 영향. 경제와 사회 1995; 18(여름호) 노동부. 매월 노동 통계 1994. 8.

박래영.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에 관한 조사 연구. 노동경제논집 1993; 16: 1-28.

법무부. 국정 보고 자료 1992.

아산 사회복지재단. 한국의 해외취업. 서울:아산 사회복지재단, 1988:91.

이채용, 이종영. Psychological Well-being Index 의 신뢰도 및 타당도. 예방의학회지 1996; 29(2) : 123-139.

이혜경.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학, 1994; 28(가을호): 89-113.

장세진. 건강통계자료 수집 및 측정의 표준화 연구. 서울: 대한예방의학회, 1993.

정도연. 행동과학, 건강과 질병의 정신 생리학적측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151-166.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외국인 산업기술연수협력사업 운용요령. 서울: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1995.

지인식. 외국인 노동자 실태. 서울:재한 외국인 선교회, 1996.

천주교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설문통계자료. 천주교 1993.

최정애. 일부 산업장 근로자의 간이 정신 진단 검사(SCL-90)결과에 관한 연구. 예방의학회지 1982; 15(1): 219-227.

한국교회 외국인 노동자 선교 협의회.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들. 제1회 외국인 노동자 선교세미나 연세집, 1995.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 위원회. 외국인 노동자와 인간의 기본권. 서울: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 평화 위원회, 1993.

홍옥일. 외국인 근로자 실태에서 본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방향. 서울: 숭실대학교, 1995.

홍윤철, 하은희.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실태 조사. 대한 산업 의학지 1996; 8(1):1-14.

Derogatis LR, Lipman RS, Covi L; SCL-90. An outpatient psychiatric rating scale preliminary report, Psychopharmacology Bulletin 1973;9:13-27.

Goldberge DP. Manual of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Windsor: NFER Publishing Company, 1978.